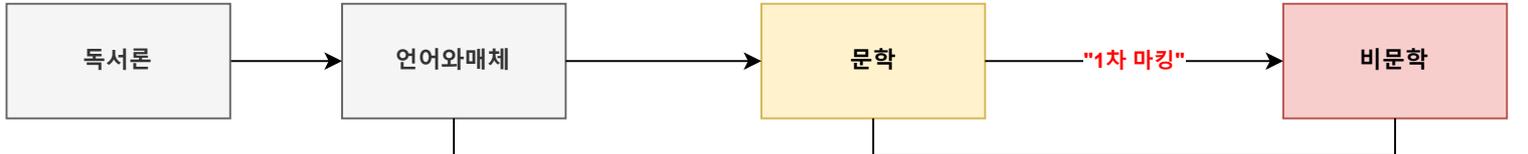


### Mind Setting

1. 애초에 모든문제를 다 맞출 생각이 없다. 3문제 정도 버려도 나머지 똑바로 풀면 안 망한다.
2. 90점만 넘자. 90점을 넘으면 백분위가 98↑
3.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깔끔히 버린다.  
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보자.  
**한 문제 때문에 시험 전체적인 Flow깨지는게 더 치명적이다. 한문제 집착하다 대학을 못가는 수가 있다.**

국어는 생각없이 풀다보면 머리가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.. 그때부터 매우 틀림

정신만 차리면 된다!!  
의도적으로 잠깐 정신만 차리자!



▷ 15m 전후

1. 헛갈리는 문제 → **틀린글자찾기!!!**  
보통 생각지도 못한 글자가 틀렸음
2. 선지에서 내가 무엇을 분석하기를 요구하는지 Scan  
→ 이에 맞춰서 제시된 단어/문장을 분석 → 이후 선지 읽기 (선지에 끌려다니는 것 방지)
3. 꼭 오지선다 모두 확인하자

1. 선지 중 정답을 딱 결정하고 논증..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논증이 아니면 나머지 선지도 다 읽고 판단..
2. 의도적으로 시간을 줄이려고 하지 말자. 글이 튕긴다.
3. 글이 튕기는것 같다 싶으면 멈추고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 — 이게 쉽지 않을텐데 해내야함
4. 글이 튕길때 or 고민할때 시간 손실이 크다. But 글을 집중해서 읽는 동안에는 시간이 생각보다 안 간다. 지문 읽는 시간을 생각보다 늘린다는 느낌이어도 집중만 한다면 시간 맞출 수 있다.

**4. 한 세트 풀고 세트 내 빼먹은문제 없는지 확인  
특히 문학에서 1문제 빼먹는경우 있다**

### [독서 전략]

▷ 남는시간 다 투자 (35m 이상은 확보할 것)  
틀리는 개수 多 → 점수하락의 주 원인

▷ 단어포함한 한 지문 (2점 2점 3점) 3분잡고 서치해도 된다.. 생각보다 한 지문 날리는게 큰 문제는 아니다. 애초에 3개 다 풀 시간이 안 남는다면 나머지 2개를 제대로 하고 마지막 지문은 빠르게 서치한다는 마음가짐.

0. 병적으로 선지가 옳은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함..

1. 틀린 한 글자를 찾겠다는 마음가짐
2. 선지가 복잡하면 선지를 끊어서 읽으면서 각 부분이 옳은지 판단

▷ 시간 너무 신경쓰지 말고.. 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자.  
시간은 선지판단에서 녹는다.

확실하게 답이라고 생각되는게 없으면..

1. 선지를 억까하기시작하면 밑도끝도없이 틀린다.  
선지 억까하다가 틀리게 한두개가 아니다

**2. "틀린글자찾기" → 천천히 선지 다시 읽으면서 틀린 한 두 글자를 찾자**

3. 혹시 문제를 잘못읽었나 본다